

# 방법으로서의 북방인식과 환동해 지역인식 방안\*

이선이\*\*

## | 목 차 |

- |                    |                      |
|--------------------|----------------------|
| I. 지역성의 발견         | III. 접경의 경직성에서 변경의 역 |
| II. 환동해지역의 지역성과 방법 | 동성으로                 |
| 으로서의 북방인식          | IV. 맺음말: 환동해 지역인식의 길 |

## | 논문요약 |

이 글은 환동해 지역연구에 있어서 지역성의 형성 방법을 모색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다케우치 요시미는 아시아에 있어서 ‘근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서양 중심의 근대를 비판하며 아시아를 인식하는 방식의 하나로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를 제안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요시미의 문제의식을 환동해 지역연구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환동해 지역인식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변방과 변경에 놓인 북방공간의 재인식을 통해 요시미의 문제의식을 환동해 지역연구에 적용하였다.

현재 환동해지역은 강고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충돌하는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연구에서는 접경지역으로서의 경직성을 변경적 역동성으로 읽어내는 작업을 통해 하나의 지역성을 형성해나가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는 환동해지역을 제도화되고 구획화된 지리적 범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유지평으로 인식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변경적 특성을 지역성 형성의 한 방안으로 삼기 위해 여기에서는 방법으로서의 북방인식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62-H00001). 이 논문은 ‘2012 경희대 국제지역연구원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하였음.

\*\* 경희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한국 근대시에서 북방의식을 보인 시편들이며, 이 시편들의 다시읽기를 통해 환동해지역의 지역성 형성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 주제어: 환동해지역, 지역인식, 북방인식, 탈민족주의, 북방시편

## I. 지역성의 발견

지역연구의 본질은 지역성을 성립시키는 고유한 논리를 분명히 하고 세계적인 시야로 그 지역성·고유성을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데 있다고 일본의 동남아 지역연구가인 야노 토루(1997)는 주장한 바 있다. 그의 주장은 지역연구의 본질이 지역성의 발견에 있다는 점, 특정 지역의 지역성은 지역의 고유성에 천착하여 여기에서 공유할 수 있는 인식을 도출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지역연구를 통해 공유가능한 지역성이 형성될 때 비로소 지역지평이 확보되고 지역연대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일까? 환동해지역<sup>1)</sup>은 아직 지역성이 형성되지 못한 채 지역화 과정에 있는 새로운 인식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환동해 지역연구는 이 지역의 고유성에 대한 천착을 통한 공유가능한 보편적 인식의 발견을 요구한다. 이때 지역성의 발견은 이를 가로막는 인식론적 장애, 즉 특수성의 차원으로 우리의 인식을 귀속시키는 기존 인식에 대한 저항과 해체를 요구한다. 이러한 인식은 환동해지역을 물리적·절대적 공간 안에 가두지 않고 사회적이고 상대적인 공간 속에서 개념화하고, 재현과 실천을 통해 새롭게 재구성되는 공간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권세은 2012, 10). 이러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 남는 문제는 이 지역에 대한 인식을 어떤 방식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환동해를 어떤 사유공간으로 파악할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치환될 수 있

1) 환동해지역은 일반적으로 동해를 둘러싸고 있는 한반도의 동해안, 중국의 동북3성, 일본의 서해안, 러시아의 극동지구를 지칭한다.

다.

일본의 대표적인 중국문학 연구자인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는 아시아를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라는 논제를 두고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를 제안한 바 있다. ‘실체로서의 아시아’에 대응하는 개념인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를 제안하면서, 그가 보여준 사유의 모색과정은 환동해 지역연구에서 어떻게 지역성을 발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접근하는 사유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다케우치 요시미에 따르면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란 서구의 우수한 문화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서양을 동양에 의해 다시 감싸안아서 역으로 서양 자신을 동양 쪽에서 변혁한다는 문화적인 되감기 또는 가치상의 되감기에 의한 보편성 확보 과정이다(요시미 2004). 그는 우선 서구적 가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동양 쪽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구체적으로 실천되었는가 하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렇게 설명한 후 그는 이 ‘방법’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요시미 2004, 169).

그 되감기할 때에 자신 속에 독자적인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그러한 것이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방법으로서, 다시 말해 주체 형성의 과정으로서,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인용을 통해 추측해 보건대, 요시미가 아시아를 사유하는 방법은 ‘자신 속에 독자적인 것’의 발견과 이 발견을 통해 주체 형성 과정의 구체성을 확보하는 작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주체 형성의 과정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부연설명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 그는 이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였다. 다만 요시미의 또 다른 글 <근대란 무엇인가>에서 이 ‘방법’의 함의를 추측해 보면 이렇다(요시미 2004). 그는 일차적으로 동양의 근대화가 서구적인 근대의 일방적 수용으로 진행되었다고 보는 기존의 근대이해 방식을 비판하면서 ‘동양의 저항’에 주목한다. 이 저항의 구체성은 위로부터의 근대를 이루어 나간 일본의 경험이 아니라 기층 민중들의 변혁에 대한 열망으로 근대를 만들어나간 중국의 경험에서 포착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그는 루

슌(魯迅)의 문학에 주목하고, 루쉰을 통해 중국적 저항성의 구체성을 확보해 나간다. 요약해 보면 그가 아시아를 다시 사유하는 방식은 주어진 관념에 무비판적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저항하며 스스로를 형성해 나가는 구체적 경험에 대한 진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시미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일차적 교훈은 서구중심의 근대인식을 확정적 진리가 아니라고 보는 문제의식이지만, 그의 시각이 보여주는 보다 중요한 지점은 이를 주체적으로 넘어서는 방식을 찾아나가는 데에 있다. 그는 서구적 근대성의 이식을 통해 형성된 아시아 혹은 동양이라는 통념을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동양에서 벌어진 구체적인 실천에서 자기 사유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한다. 즉 그는 권력화된 인식이 갖는 강제성을 전복해내는 힘을 삶의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 발견하고, 이 저항의 면면들을 보편성의 지평 안에서 어떻게 다시 사유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전환해 낸다.<sup>2)</sup> 이 과정에서 아시아 내지는 동양은 새로운 지역성을 형성해 나간다고 하겠다. 요시미의 이러한 문제의식과 지역인식의 방법은 현재 강고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충돌하는 접경지역에 놓인 환동해 지역연구의 인식론적 방향을 정초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유의 단초를 제공한다.<sup>3)</sup> 이를 환동해 지역연구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접경지역으로서의 경직성을 변경적 역동성으로 읽어내는 작업으로 지역성을 발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환동해지역을 제도화되고 구체화된 지리적 범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유지평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sup>4)</sup> 이러한 사유지평으로서의 환동해를 전제할 때, 환동해 지역연구는 현재의 국가주의 내지는 민족주의의 견고한 장벽을 넘어서는 탈경계적 지평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2) 이러한 논의는 요시미의 “루쉰”, “일본의 아시아주의” 등이 있음(竹內好 외 2011).

3) 이러한 시도는 이미 동아시아 담론에서도 모색된 바 있다. 동아시아 지역인식에 요시미의 문제의식을 적용한 예로는 전형준(1997), 윤여일(2010), 고성빈(2012) 등이 있으며, 이미 요시미의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라는 문제의식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인식 방법론으로 하나의 수사적 권위를 획득하고 있다.

4) 이문영(2010)은 향후 지역연구가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하며 “지역연구의 과거를 판단하고 미래를 가다듬는 것대는 그것이 지난 세기 인류의 사유와 상상력을 장악해온 지식생산과 담론구성의 근대적 구획과 경계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우며 여기에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이 문영의 이러한 문제의식과 맥을 같이한다.

## II. 환동해지역의 지역성과 방법으로서의 북방인식

오늘날 환동해지역은 크게 다음 세 층위에서 지역성이 규정된다. 첫째, 이 지역은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견고한 국가주의로 인한 역내 국가 간 대립이 고조되는 갈등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갈등의 현실과는 달리 이 지역은 역내 국가와 지방 차원의 경제협력 및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실천되고 있는 소통과 교류의 공간이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은 동해라는 해양공간을 공유함에 따라 동해를 중심으로 이를 공유하는 지역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는 생태공간이기도 하다. 개별 층위들은 상호복합적으로 혼재하면서 다층적 지역성을 보이는데, 이 중에서 환동해지역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심 변수는 여전히 배타적인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역내 국가들 사이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이러한 주요 변수로 인한 상호 대립과 갈등이 반복적으로 야기되는 문제지역으로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독도로 상징되는 영토분쟁은 이미 가시화된 갈등요소이지만 이 밖에도 각국이 안고 있는 변경의 역사로 인한 중첩된 영토, 이주와 이민으로 인한 다중적 정체성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근대국가체제 내에서 갈등요소로 상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이들 문제는 근대적인 국민국가의 체제 내적 인식으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하지만 실재하는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하나의 선언적이고 당위적인 지역인식만으로 지역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은 담론의 권력화로 귀결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sup>5)</sup> 따라서 환동해지역의 지역성을 형성하는 방법은 지역화를 가로막는 현재적 인식의 지층들을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인식의 해체작업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5) 박상수(2010)는 기존의 동아시아담론의 인식론을 검토하면서 ‘우리는 선언적이고 경화된, 그리하여 담론(권력)화된 ‘동아시아’를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초국가적 공간에 대한 탐구를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인식은 선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현실적인 경험을 보다 면밀하게 읽어내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지역인식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적시한 결과라 하겠다.

실제로 환동해지역은 아시아 더 좁게는 동아시아라는 지역인식에 비추어 볼 때도 이들 인식의 외부에 있는 주변부의 중첩된 변방으로 존재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지역성의 발견은 이러한 현실직시에서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즉 아시아 혹은 동아시아의 외부 내지는 변방에 처한 현실을 하나의 고유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보편의 추구와 연결시킬 수 있는 인식의 계기들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성을 발견해 나가야 할 필요성은 현실의 반영이자 요구라 할 수 있다.<sup>6)</sup>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주변부화를 강요하는 현실에 저항하는 구체적인 경험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경험 속에서 현존하는 힘의 위계화가 공고하게 영토화를 강제함으로써 경계 내적 인식으로 환원시키려는 완력들에 저항하는 전복의 힘을 발견하는 일은, 이 지역이 공유하고 있는 변방의식이 촉발하는 주변부의 역동성에 주목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보편을 모색해 나가는 구체적 경험을 발견하는 일이야말로 이 지역의 지역성 형성의 한 실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한 가능성으로 ‘방법으로서의 북방인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요시미의 문제의식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적 경험들을 직시하면서 주체적인 저항의 중요성을 강조한 요시미의 문제의식은 환동해의 지역성의 형성에 있어서 소중한 전언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환동해 지역연구에서 북방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자.

주지하다시피 우리에게 북방으로 인식되어 온 압록강 및 두만강 주변 지역과 만주와 연해주 지역은 근대로의 이행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지역이다. 이 과정에서 북방이라 지칭된 공간은 각국의 민족주의적 욕망이 겹쳐지면서 역내의 대표적인 접경지역이 되었다. 북방이라는 공간에 착안하는 것은 주변부화 내지는 변방을 경험적 감각으로 함유하고 있는 이 공간이 환동해지역의 지역성을 생산적으로 논의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동해 지역연구의 지역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북방 공간처럼 현재적 인식의 주변부를 구체적 경험으로 함장하고 있는 하위

6) 여기에서 ‘보편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보편의 추구’로 기술한 것은, 보편을 불변하는 절대 진리 혹은 서구라는 역사적 실체로 상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편은 언제나 특수와의 변증법적 대화를 계속하며 재인식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지역에 대한 재인식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환동해 지역연구에서 북방<sup>7)</sup>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여기에 있다.

이러한 북방공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오늘날 지배적인 북방인식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우선 북방은 민족의 신성한 기원공간으로서 고토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기억의 발굴은 일제강점이라는 국권상실에 대한 위로나 보상심리가 북방인식으로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북방은 일제에 저항하며 무장독립투쟁이 전개된 저항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근대로의 이행과정에서 집단적인 민족의 디아스포라가 진행된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북방인식은 식민경험에 대한 기억의 환기를 반복하면서 민족주의의 강화로 쉽게 환원되어 버린다.

이러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작동은 1990년대 이후에 접어들면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주연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20여 년 동안 일본과 한국의 학계에서는 만주와 만주국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일본의 경우, 만주에 대한 관심은 제국의 향수나 전전과 전후의 국가가 갖는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역사적 실증과도 관련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한족 중심으로 재편되는 중국 민족주의에 대한 대응이라는 현실적인 요구가 만주에 대한 관심의 촉발을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주의의 발로는 우리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일본 식민통치 메커니즘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한민족의 생활공간으로서 만주에 대한 수난사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우리의 만주연구 또한 본질적으로 민족주의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양국의 연구가 근자에 들어 ‘만주는 특혜 받은 일체의 인식과 고정관념의 해체, 기존의 경계 허물기 등을 외치는 새로운 철학적 조류인 탈구조주의의 관점에서 절묘한 연구대상’(한석정/노기식 2008, 7)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문화적 다양성과 혼종성의 공간으로 만주를 재인식하는

7) 역내 각국에서 우리에게 북방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는 다를 수 있다. 여기서는 한국의 입장에서 ‘북방’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이를 ‘변경’ 혹은 ‘접경’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북방’이라는 용어가 가진 한국사적 함의를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보다 보편적인 용어를 모색하는 일은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sup>8)</sup> 최근의 만주연구는 새로운 연구공간의 발굴과 새로운 인식의 발견으로 이어지는 일정한 성과를 분명히 성취해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만주연구가 갖는 인식론적 한계 또한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이 한계는 기존 만주연구가 현재의 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강제하는 경계 안으로 환원되어 버린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작금의 만주연구의 범이 중국의 국가주의 내지는 민족주의에 대한 학문적 대응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기실 기존 만주연구가 갖는 한계는 연해주를 배제한 채 만주지역만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지역분할에서부터 이미 전제되어 있다. 북방지역이 근대에 접어들어 중요한 지역으로 부각되었을 당시 만주와 연해주는 나누어 인식될 공간이 아니었음은 여러 자료가 입증하는 바이다. 하지만 기존의 만주연구는 연해주를 의식적으로 배제하고 만주만을 부각시킴으로써 만주를 특권화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만주연구와 연관되고 있다는 사실, 즉 양국의 국가주의 내지는 민족주의가 만주연구의 무의식으로 자리하고 있음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의 연장선상에 놓이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만주와 연해주라는 북방공간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이 공간의 복잡성을 다국적인 관계양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한중, 한일, 중일, 러일 등 양국 간의 관계로 축소시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문제를 예각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다층성과 복잡성을 지닌 이 지역의 지역성은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방공간이 다양한 민족의 공존과 갈등이 혼재하는 공간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이를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근대에 접어들어 이곳은 이주와 이민을 통해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며 국제도시가 형성되었고 이질적인 인종, 문화, 언어가 공존하고 상충하는 소통과 갈등의 공간이었다. 이러한 문화적 혼종화가 분출한 공

8)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근대문학 연구 분야에서도 만주연구에 대한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문학연구 분야의 만주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민족문학연구소(2007), 오양호(2007),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2010)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소설연구가 중심에 놓이고 영화, 가요 등의 대중문화가 분석대상이 되고 있다.

간으로서 북방지역은 하나의 의미공간으로서 작금의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의 경계를 넘어서서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오늘날 환동해지역은 갈등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전제할 때, 이러한 갈등이 역사적으로 극명하게 전개된 북방이라는 하위지역에 대한 인식은 환동해지역을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라는 난제를 풀어나가는 중요한 인식대상이 될 수 있다. ‘방법으로서의 북방인식’이 놓인 지점이 바로 여기이다. 환동해지역의 견고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담론전략의 일환으로서 우리의 기존 북방인식을 비판적으로 재인식하는 방식이야말로 ‘방법으로서의 북방인식’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방법으로서의 북방인식’은 근대에 접어들면서 형성된 기존의 북방인식이 왜곡하고 망각한 기억의 직시이자 복원으로서, 기존의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유지평을 모색하는 과정을 함의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담론적 실천으로서 한국 근대사에서 북방인식<sup>9)</sup>이 드러난 대표적인 북방시편<sup>10)</sup>에 대한 다시읽기를 시도함으로써, 환동해지역을 어떤 사유공간으로 바라볼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 Ⅲ. 접경의 경직성에서 변경의 역동성으로

북방시편이 북방<sup>11)</sup>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거나 북방정서를 담아낸

- 
- 9) 여기에서 인식은 단순히 앎이라는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앎이 실천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추동한다는 점에 강조점이 놓인다.
- 10) 곽효환(2009)은 ‘북방시편에 대한 범주 설정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심으로 하는 함경도, 평안도 지역과 간도를 포함한 한반도 북쪽과 고토였던 만주대륙 일원의 북방공간을 무대로 삶과 정서를 담은 작품들’이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오양호(2007)는 일제강점기 만주와 간도 지역으로 간 시인들을 북방파로 명명하면서 오장환, 유치환, 이용악, 이찬, 박팔양, 이설주, 이서해, 백석, 이수형, 김달진 등이 대표적이라고 보았다.
- 11) 윤영천(2008)은 한국 근대 북방시 계열에서 북방을 지칭하는 용어는 다음 네 계열로 나뉜다고 보았다. ①북국·북쪽 : 김동환 “눈이 내리느니”(1925), 조영출 “국경의 소야곡”(1933), 이용악 “북쪽”(1937) ②북방 : 박팔양 “밭차”(1927), 오장환 “북방의 길”(1939), 백석 “북방에서”(1940), 이육사 “절정”(1940) ③북간도·만주·북만 :

다고 할 때, 북방시의 공간적 배경으로 오롯하게 부각되는 되는 곳이 바로 국경에 접해 있는 경계지대라 할 수 있다. 국경은 국가주권이 가시화 되는 현상이면서 국가 간의 배타적인 영역 분할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하지만 국경을 생활공간으로 삼고 있는 거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경이란 실체이면서 가상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보다 명징하게 체험되곤 하는데, 국경분할선의 가변성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내면화하고 있는 국경지대의 거주민들에게 국경이란, 자신들의 공동체와 삶의 터전에 대해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일종의 물리적 폭력이라 할 수 있다. 근대국가체제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영토경계로서의 국경인식이 강화되자 이에 대한 정서적 저항도 적지 않았을 것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한국 근대시의 출발선상에서 근대시의 중요한 시적 공간으로 국경지대가 포착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근대시사에서 누구보다 앞서 이러한 국경의 정서를 포착해낸 시인은 파인 김동환(巴人 金東煥)이다. 국경과 근접한 함경북도 경성에서 나고 자란 그는 1925년에 근대적인 서사시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시 『國境의 밤』을 발표하였다. 이후 이 서사시는 일제강점기 두만강변 국경지대에서 살아가는 빈민들의 삶을 통해 궁핍한 식민지 현실과 민족적 애환을 그린 작품으로 평가받아 왔다(김재홍 1988). 이러한 평가를 온전히 수용한다면 이 작품은 국경을 배경으로 식민지 현실 하에서 고통 받는 민중의 삶이 주된 내용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작품을 분석해 보면, 기존의 평가나 해석과는 달리 주제나 분량 면에서 궁핍한 식민지 현실이나 민족적 애환이 중심 서사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평가는 작품의 실제와는 분명한 거리를 보이는 바, 이러한 평가는 강요된 민족주의적 무의식이 빚어낸 해석과 평가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다시읽기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제로 한국시사에서 이 작품은 근대적인 서사시라는 장르에 대한 논의로 시사적 관심대상이 되어 왔고<sup>12)</sup> 내용 자체에 대한 검토는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박세영 “향수”(1936), 서정주 “만주에서”(1940), 유치환 “새에게”(1947) ④북새(北塞) : 김동환 “선구자”(1924), 이찬 “북방도”(1940)가 그것이다.

12) 기존의 연구에서 오세영, 홍기삼, 조남현 등 많은 논자들은 서사시라는 형식에 주안점을 두고 이 이 작품을 논의해 왔다. 이처럼 형식에 대한 논의가 우위를 점한

그렇다면 작품의 실체는 어떠한지 살펴보자.

이 작품은 두만강변의 가난한 국경마을을 무대로 여진족의 후예인 순이, 그녀의 남편이자 같은 여진족의 후예인 병남, 그리고 순이의 첫사랑으로 같은 여진족의 후예가 아니라는 이유로 헤어진 청년<sup>13)</sup>이 주요인물로 등장한다. 3부 72장 980여 행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현재-과거-현재로 시간적 배경이 바뀌면서 사건이 전개되는데, 순이의 남편이 밀수업을 떠났다가 주검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작품 전체를 감싸는 바깥 이야기로, 순이의 첫사랑인 청년과의 재회와 지난날에 대한 회상 그리고 이들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안의 이야기로 제시되는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다. 제1부는 주인공 순이가 소금실이 밀수출을 하러 떠난 남편을 걱정하는 것과 이 걱정이 옛 사랑에 대한 회상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제2부는 제28절에서 제57절까지로 순이와 청년이 산골마을에서 사랑을 나누던 아름답던 시간과 여진족의 후예이자 노비 신분이라는 이유로 순이와 청년의 사랑이 파국을 맞이하는 과정이 전개된다. 제3부는 다시 현재가 되면서 도시로 떠났던 청년이 찾아와 순이에게 사랑을 호소하나 이를 거절하는 순이와의 갈등이 전개되다가 마적의 총에 맞아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온 남편을 고향 산골 마을에 매장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다.

이 작품의 중심 사건은 여진족의 후예로서 재가승<sup>14)</sup>의 딸로 불리는 순이와 그녀와는 다른 민족으로 언문을 아는 선비(청년)와의 사랑과 이별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사랑이 비극적 파국을 맞은 것은 이민족과 혼인하

---

이유는 무엇일까? 일차적으로는 이 작품이 문학적 완성도 면에서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는 근대적인 문학이 형성되면서 근대시가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틀을 잡아가던 시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동시대 여타의 작품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작품의 수준을 미학적 함량미달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그동안 이 작품의 평가가 장르론에 치우친 데에는 세밀한 내용적 분석을 가로막는 무의식적 억압이 자리하고 있다는 가정을 성립하게 한다.

- 13)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청년이 어느 민족의 후예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작품의 갈등구조로 볼 때, 청년은 한민족의 후예로 추측해 볼 수 있다.
- 14) 여진족의 후예로 우리나라에 귀화(歸化)하여 함경북도 산지에 부락을 형성하고 사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로, 『국경의 밤』에는 함경도에 윤관이 들어오기 전, 북관의 육진 벌을 유목하고 다니던 여진의 유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 않는 풍속과 신분의 차이 때문이다. 즉 두 사람의 사랑은 서로 다른 민족과 서로 다른 신분이라는 장벽으로 인해 과국을 맞게 된 것이다. 순이는 이민족과 결혼하면 동족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아버지의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는 길을 선택하였다. 장편 서사시인 이 작품에서 8장부터 57장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이 이 둘의 사랑과 이별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겨울밤에 갑자기 찾아와 지난날 이루지 못한 사랑을 고백하는 청년과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죽어서나 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체념하는 순이, 이 둘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에서 이 서사시는 비극의 최고조에 이른다. 여기에서 밀수출을 떠났다가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오는 남편의 이야기는 이들의 사랑의 비극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로 배치되어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의 주된 사건은 순이와 청년의 사랑과 이별이며 주제 또한 순이의 비극적 사랑과 애절한 삶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평가는 이 작품의 주제를 ‘두만강(豆滿江)의 겨울밤을 배경으로 밀수(密輸)를 떠난 남편을 근심하는 아내의 애타는 심정을 빌려 일제하의 민족적인 비운을 노래<sup>15)</sup>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 작품에서 순이와 남편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국경지대 빈민의 삶에 중심을 두고 보면 이들이 가난에 처한 원인을 시대상황으로부터 유추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작품에서 순이와 남편의 관계는 매우 소략하게 그려지고 가난한 삶에 대한 형상화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남편이 밀수출을 하기 위해 떠났다 주검으로 돌아오는 것은 순이와 청년의 비극적 사랑을 강화하기 위한 서사로 기능할 뿐이며 작품 전체에서 차지하는 분량 또한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이 시의 주된 갈등은 순이와 청년의 갈등이며,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이민족의 후예라는 이유로 노비신분으로 살아오면서 자기들끼리만 혼인하며 살아온 역사적 인습 속에 감추어진 민족과 신분

15) 사진은 당대에 유통되는 일반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제할 때, 현재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사전적 의미가 대체로 이러하다. 인용한 글은 두산백과사전에서 제공하는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발췌한 부분이다(<http://100.naver.com/100.nhn?docid=21767>. 2012년 5월 20일 검색).

이라는 경계의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인이 이 작품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바도 이러한 강요된 경계의식이라 할 수 있다.

(1)바람은 이 조그마한 S촌을 삼킬 듯이 심하여간다/S촌뿐이라 강안(江岸)의 두 다른 국토와 인가와 풍경을 시름없이 덮으면서/별부(筏夫)의 소리도, 고기잡이 얼음장 그늘 소리도, 구화(溝化)불에 마주선 중국 순경의 주정소리도, 수비대 보초의 소리도/검열 받은 필름같이 푹푹 중단되어가면서, 그래도/이 속에도 어련애 안고 우는 촌 처녀(處女)의 소리만은 더욱 분명하게/또 한 가지/방랑자의 호소도 더욱 뚜렷하게/울며, 짜며 한숨짓는 이 모든 규음(揆音)이/바뀌진 피아노의 건반같이/산산이 깨뜨려놓았다, 이 마을 평화를//(11장)

(2)재가승(在家僧)이란 - 그 유래는/함경도 윤관이 들어오기 전,/북관의 육진 별을 유목(遊牧)하고 다니던 일족이었다./갑옷 입고 풀투구 쓰고 돌로 깎은 도끼를 메고/해 잘 드는 양지별을 따라 노루와 사슴잡이하면서/동으로 서로 푸른 하늘 아래를/수초를 따라 아무데나 다녔다, 이리저리./부인들은/해 뜨면 천막밖에 기어나와,/산 과일을 따 먹으며 노래를 부르다가/저녁이면 고기를 끓이며 술을 만들어,/사내와 같이 먹으며 입맞추며 놀며 지냈다./그러다가 청산을 두고 구름만 가는 아침이면/산령에 올라 꽃도 따고, 풀도 꺾고(30장)

(3)그러나 일이 났다./앞마을에 고구려 군사가 쳐들어왔다고 떠들 때,/천막에다 여러 곳에서 수많은 장정들이 모조리/석부를 차고 활을 메고/여러대 누려 먹은 제 땅을 안 뺏기려,/싸움터로 나갔다./나갈 때면 울며불며 매여달리는 아내를 물리치면서/처음으로 대의를 위한 눈물을 흘려보면서./남은 식구들은 떠난 날부터/넷가에 칠성단을 묻고 밤마다 빌었다, 하늘에/무사히 살아오라고! 싸움에 이기라고!/그러나 그 이듬해 가을엔 슬픈 기별이 왔었다./싸움에 나갔던 군사는 모조리 패해서 모두는 죽고/더러는 강을 건너 오랑캐령으로 달아나고/- 사랑하던 여자와 말과 서부와, 석통소를 내 버리고서./즉시 고구려 관원들이 왔었다 이 천막촌에/그래서 죽이리 살리리 공론하다가/중으로 쓰기로 하고 그대로 육진에 살게 하였다./모두 머리를 깎이고(34장)

인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인이 순이와 청년의 사랑, 남편의 죽음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일제강점이라는 민족의 수난사라기보다는 국경지역민들의 고난사이며, 이를 통해 이민족과의 혼인금지라는 민족이라는 경계와 국경으로 상징되는 국가라는 경계가 갖는 폭력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인은 고려시대의 여진 정벌을 통한 영토 확장을 여진족의 입장에서 생활공간의 빼앗김과 가족의 죽음이라는 수난사로 그려냄으로써, 국경지대를 삶의 근거로 살고 있는 민중들의 수난사를 통해 민족이라는 경계를 넘어서는 민중적 연대의식을 환기해 낸다. 이러한 연대의식은 국경으로 상징되는 강고한 국가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승화된다. 이는 청년의 입을 통해 보다 노골적으로 암시되는 바이기도 하다.

“굴뚝이 노동자의 육반 위에 서고/호가사 잉여가치의 종노릇하는/모든 혼정(魂精)이 전통과 인습에 눌리어/모든 질곡밖에 살 집이 없는/그런 도회에, 도회인 속에,”//“데카당, 다다, 염세, 악의 찬미/두만강가의 자작돌같이/무룩히 있는 근대의/의붓자식 같은 조선의 심장을 찾아가라고요!/아, 전 원아, 애인아, 유목업아!/국가와 예식과, 역사를 벗고 빨간 몸뚱이/네 품에 안기려는 것을 막으려느냐?”/그러면서 청년은 하늘을 치어보았다.(58장)

자본주의와 도시문명에 대한 비판의식과 함께 청년이 북방으로의 귀향을 통해 궁극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점은 국가와 인습과 역사의 경계짓기로 인해 이루지 못한 순이와의 사랑이다. ‘빨간 몸뚱이’로 상징되는 순이와의 사랑은 국경이라는 경계와 이를 넘어서려는 사랑의 절규와 대비되면서 비극적인 울음을 자아낸다. 이러한 비극이 강고한 영토주의에 기반을 둔 국민국가체제를 확립해 가는 근대의 초입에 국경의 밤을 무대로 펼쳐짐으로써 이 시는 민족과 국가라는 경계에 대한 비판의식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편, 이 시기에 북방을 배경으로 하는 시편에는 이민족과의 정서적 교감 내지는 연대의식이 강하게 표출되는데, 이용악의 시 “오랑캐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아낙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갔단다/도래샘도 뗏집도 버리고 강건너  
로 쫓겨갔단다/고려 장군님 무지 무지 쳐들어와/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  
러갔단다//구름이 모여 골짜 골짜를 구름이 흘러/백년이 몇백년이 뒤를  
이어 흘러갔다//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오랑캐꽃/너는  
돌가마도 털메투리도 모르는 오랑캐꽃/두 팔로 햇빛을 막아줄게/울어보렴  
목놓아 울어나 보렴 오랑캐꽃 -이용악, “오랑캐꽃”(진문)

이 시의 모티브도 고려시대 윤관의 여진족 정벌이다. 이 정벌로 인해 생활공간을 잃어버린 이민족에 대한 연민의 정서가 ‘울어보렴 목놓아 울어보렴 오랑캐꽃’이라는 진술로 표출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오랑캐꽃에 이입된 화자의 슬픔이 일제에 의해 꺾박받던 유이민들의 비애이며 이는 식민지 조선 민중의 비통함이라고 보았다. “돌가마도 털메투리도 모르는 오랑캐꽃”의 연약한 형상이야말로 일제 식민 통치 아래 신음하는 그 시기 조선민중의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시각(윤영천 1988, 228)은 완전히 부정할 것만은 아니지만, 이 작품이 전하려는 메시지와는 일정한 거리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이 시에서 강조점이 놓이는 곳은 식민지 조선인의 슬픔과 비애가 아니라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해 생활공간을 빼앗긴 국경지대의 민중이 겪는 고통이며 이러한 고통에 대한 민중적 연대의식이 이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근대의 북방시편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인식은 일종의 무국적자(無國籍者)에게서 느껴지는 탈경계적 사유이다. 일제강점기에 북방은 근대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개척된 신천지로서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생활한 국제화된 공간이었다.<sup>16)</sup> 만주국이나 러시아 연해주로 이민을 떠난 이들은 국민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균열을 느끼며 생활공간으로서의 북방을 경험해야 했다. 이렇게 하나의 경계를 넘어서는 월경적 경험은 이들에게 탈경계적 사유를 촉발하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사유에 포착된 북방은 더 이상 잃어버린 고토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공간이거나 광활한 자연이 내뿜는 생명력의 공간으로 표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의 북방 인식에는 무국적자적 자유로움이 강하게 발화된다.

16) 오태영(2010)은 이효석의 소설을 분석하며 일제강점기에 하얼빈은 국제화된 공간으로 세계를 표상한다면 이에 비해 조선은 지방으로 표상된다고 보았다.

(1)나는 나의 祖國을 모른다/내게는 定界碑 세운 領土란 것이 없다/—그 것을 소원하지 않는다//나의 祖國은 내가 태어난 時間이고/나의 領土는 나의 雙頭馬車가 굴러갈/그 久遠한 時間이다//나의 雙頭馬車가 지나는/우거진 풀 속에서 /푸르른 眞理의 놀라운 進化를 본다/山峽을 굽어보면서 꼬불꼬불 넘는 嶺에서/줄줄이 뻗은 숨쉬는 思想을 만난다 -이용악, “雙頭馬車”(부분)

(2)역사도 권력도 문명도 부귀도/연엄(筵幪) 수천리 준령으로 격(隔)하야/ 일찍 인류의 연면(連綿)한 가슴 속에/한 개 연정도 불러본 적 없는 북방이여//원시/원시 그대로의 울울(鬱鬱)한 수림/잉-잉/나희(北風)는 사철 수림을 휩쓸고//산새도 흥미없는 진젯빛 하늘 밑/만목일도(滿目一圖) 높고 낮은 산정이어 좁고 넓은 영복(嶺腹)이여/산정마다 영복마다 꺾어 붙인 화전·화전·화전/화전가에 옹기종기 거리 없는 촌(村)·촌……//.....(중략).....//감자·조·귀리·각양의 잡곡 조석(朝夕)도/그 어느 위대한 절미 정책(節米政策)의 공적임을 들은 바 없고/근로(勤勞)·검의(儉衣)의 국민적 미풍도/그 어느 현명한 두뇌의 하루아침 장광설도 요구한 적 없고//때로 그들께 머언 먼 고향의蒼然(蒼然)한 향수를 되씹는 습성은 있다해도/아직 한번 그 계보를 잃어진 조상 속에 파뒀져 찾는 흥미도 제것으로 한적 없나니//지순한 것이여 지 -이찬, “북방도(北方圖)”(부분)

기존의 많은 연구자들이 이용악과 이찬의 시를 식민지로 전락한 민족 현실의 체험적 형상화로 보고, 이들의 시세계는 국경을 넘어 북방대륙으로 유랑과 이민을 떠나는 이들의 비감어린 삶을 시적으로 포착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인용한 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북방시편에는 ‘나는 나의 祖國을 모른다/ 내게는 定界碑 세운 領土란 없다’는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무국적자적 인식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이찬의 시에서도 일종의 정치적 난민인 화전민의 생활 속에서 국가의 정책이나 지배이데올로기, 그리고 혈연적 계보화의 욕망에 포섭되지 않는 무국적자적 감수성이 발견된다. 이러한 탈경계적 정서는 강제된 근대와 식민지 착취라는 중첩된 수난 앞에서 근대적 삶의 실상을 통찰하는 주변화된 시선이 감지할 수 있는 인식의 한 풍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백석

의 북방시편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듯이 대체로 낭만적 유랑의식으로 표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망국(亡國)과 이향(離鄉)으로 이어진 이들의 경험이 단순히 절망과 분노, 비애와 자조의 목소리로 표출되지만은 않았음도 다시읽기가 필요한 대목이다. 실제로 국경을 넘나들며 이들이 갖게 된 인식 안에는 국민국가로 정형화되어 가는 근대에 대한 비판적 사유가 농후하게 녹아들어 있다. 이러한 인식이야말로 북방이라는 공간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야 할 근대 전복의 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북방시편에 대한 연구가 식민지 현실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인하여 작품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본래적 의미를 무의식적으로 배제하고 있었음을 반성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근대 북방시편 가운데 민족과 국가라는 경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넘어서서 이민족 간의 민중적 연대의식이나 무국적자적 감성을 보여주는 시편들이 있다는 사실은, 근대가 강요한 경계들을 전복해 내는 중요한 사유의 힘으로 다시읽기를 필요로 한다. 이는 북방시편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접경의 경직성에 기대고 있었다면 이들 시편에 대한 다시읽기는 변경의 역동성으로 이를 읽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 IV. 맺음말 : 환동해 지역인식의 길

환동해 지역연구에서 인식론적 출발은 이 지역을 물리적 실체로 상정하지 않고 하나의 생성적 공간으로 인식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식은 기존의 통념을 비판적으로 해체하면서 그 속에서 근대의 폭력에 맞서려는 전복적 사유를 발견하는 여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환동해 지역연구는 환동해를 통해 발견해야 할 사유지평을 모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방법으로서의 북방인식’은 이러한 사유지평으로 환동해지역을 인식하기 위한 구체적인 담론적 실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동아시아 담론이 한중일을 중심에 두고 있는데 비해 러시아를 포함하면서 한중일리의 관계양상을 조명하는 환동해 지역연구는, 이들 역내 국가의 국경이 접

하고 있는 접경의 실상을 통해 새로운 지역인식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담론이 공동의 문화적 자산과 역사적 교류에 천착하고 있다면, 이와는 달리 환동해 지역연구는 접경이 안고 있는 갈등의 실상을 직시하고 이를 내파하는 방식으로 담론의 의미와 위상을 확보해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풍요로운 인식의 보고인 북방은 우리에게 열려있는 생성의 공간이자 한중일리의 견고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라 하겠다. 북방공간에 대한 구체적 실상에 천착해 보면, 생활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탈과 전복의 양상들은 복수성을 지니며 이 공간을 새롭게 생성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동해의 지역성은 이들 경직된 접경에 대한 천착을 통해 그 속에서 변경의 역동성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여기에서는 한국 근대시의 북방시편에 대한 다시읽기를 중심으로 이러한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가 중일리의 시편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의 근대적 인식이 지닌 인식론적 공백을 발견하고 채워나가는 작업을 지속한다면, 근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관계망을 짜는 소중한 지적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 고성빈(2012).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의 동아시아론.” 『아세아연구』. 제55권. 제1호.
- 곽효환(2009). 『한국 근대시의 북방의식』. 서정시학.
- 권세은(2012). “환동해 지역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아태연구』. 제19권. 제1호.
- 김동환(1925). 『국경의 밤』. 한성도서주식회사.
- 김재홍(1986). “파인 김동환.” 『한국현대시인연구』. 일지사.
-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2010). 『제국의 지리학, 만주라는 경계』. 동국대출판부.
- 민족문학연구소(2007). 『일제말기 문인들의 만주체험』. 역락.
- 박상수(2010). “한국발 ‘동아시아론’의 인식론 검토.” 『아세아연구』. 제53권. 제1호.
- 오양호(1996). 『일제강점기 만주조선인문학연구』. 문예출판사.
- 오양호(2007). 『만주이민문학연구』. 문예출판사.
- 윤여일(2010).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 『오늘의 문예비평』. 제78호.
- 윤영천(1987). 『韓國의 流民詩』. 실천문학사.
- 윤영천 편(1988). 『李庸岳詩全集』. 창작과비평사.
- 윤영천(2008). 『형상과 비전』. 소명출판.
- 이동순·박승희 편(2003). 『이찬詩전집』. 소명출판.
- 이문영(2010). “1990년대 이후 지역연구의 쟁점과 전망.” 『중소연구』. 제34권. 제2호.
- 전형준(1997). “동아시아 담론의 비판적 검토.” 『인문학지』. 제15권.
- 한석정·노기식 편(2008).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 矢野暢 편(1997). 『지역연구의 방법』. 아시아지역경제연구회 역. 전예원.
- 竹内好(2004). 『일본과 아시아』. 서광덕·백지운 역. 소명출판.
- 竹内好, 丸川哲史·鈴木將久 편(2011). 『내재하는 일본』. 윤여일 역. 휴머니스트.

| 논문투고일: 2012년 07월 15일 |

| 논문심사일: 2012년 07월 17일 |

| 게재확정일: 2012년 08월 07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19, No. 2 (2012)

## **Recognition of Northern Area as a Method and Recognition of East Sea Rim Region**

**Sun-Yi Lee**

(Dept. of Korean, Kyung Hee University)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method of formation regionality in the East Sea Rim regional studies. Yoshimi Takeuchi has proposed such a critical concept "Asia as a method of thinking" as criticizing western-centered idea of modern times by asking the question of 'what means modern times for Asia.' This study adopts the Takeuchi's critical perspective in East Sea Rim regional studies.

Especially, this study tries to speculate the Takeuchi's critical perspective in detail with the northern area which implies frontier and alternation. The regionalism could be discovered in the East Sea Rim region which is conflicting area with each states' strong and firm statism and nationalism, also with inflexibility characterized as changeable dynamics. This argument is far from understanding the East Sea Rim region as the institutionalized and sectionalized geographical category but close to recognizing it as a horizon of thinking. Therefore, the proposed method in this study, so called "northern area recognition as a method" can be regarded as an introduction of the East Sea Rim region as a horizon of thinking and the practice through the discussion in detail. The main topic of this specific analysis deals with the Korean poetries of modern times, which presented the meaning of northern area. From here, it proceeds

to look into the area in the context of the cross-border recognitions which have not been focused in the field of regional studies. Related to lack of previous studies focusing on the northern area of East Sea Rim,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are poetries dealing with northern area in modern times recognizing the boundary of people and nation critically, showing democratic conscience solidarity among the many immigrants who have such emotions as the stateless person in further. That kind of emotions and thinking help us to overcome the imaginary boundary imposed by the western-centered modern times poetries when we begin to reread these poetries with the other point of view.

Key words : East Sea Rim Region, Regional Recognition, Recognition in Northern Area, Trans-Nationalism, Modern Korean Poetry on the Northern Area